

목포공공도서관 '독서논술 캠프' 개최



28일 목포공공도서관(관장 구제봉)에서 열린 '학교도서관과 함께하는 독서논술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논술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진도우체국 노인들에 삼계탕 대접



전남체신청 진도우체국(국장 박대현)은 지난 27일 진도를 진도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여름철 보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삼계탕 300인분 상당의 무료급식 행사를 가졌다. (전남체신청 제공)

KT 대학생봉사단 노인 인터넷 교육



KT(사장 이석재) 광주IT서포터즈 대학생봉사단은 최근 남구청 진월교육장에서 60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했다. (KT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 '수박 day' 행사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조노희)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조 소장은 지난 24일 중북을 맞아 '수박 day' 행사를 갖고 쇠물과 씨름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세계 3대 광고제 '뉴욕 페스티벌' 3위 조선대 출신 정호균·서욱씨

켈빈 클라인 속옷 광고에 뉴요커들 매료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색시하고 느끼는 순간이 물에 살짝 젖은 모습이었어요. 다 보이는 것보다 살짝 보일 때가 더 색시하다는 인식에 착안해 광고를 만들었어요."

세계 3대 광고제의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3위에 해당하는 '브론즈 월드 메달'을 수상한 조선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출신 정호균(26)씨와 서욱(28)씨는 "우리나라 대학생이 뉴욕 페스티벌에서 상 받은 것은 처음인데 이번을 계기로 더 많은 대학생들이 좋은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대학연합 광고 동아리 '온에드' 동료인 서재식(27·홍익대 산업정보공학과), 정소라(여·24·숙명여대 시각영상디자인과)씨와 함께 뉴욕 페스티벌에 작품을 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뉴욕 페스티벌은 클리오 광고제, 칸 국제 광고제와 함께 전 세계 광고인이 몰리는 최정상급 공모전으로 꼽히며, 지난 2007년 대학생 참여가 허용된

이후 한국 학생이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제출한 작품은 미국 브랜드 켈빈클라인의 속옷 광고로 '유혹의 시작'(Beginning of Seduction)이라 이름 붙인 옥외 대형 광고물, 흰색 슬립을 입은 여성을 찍은 것으로 비가 오면 사진 속 속옷이 젖으면서 안의 브래지어가 보이는 효과를 도입해 관심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광고제를 위해 6개월간 준비한 이들은 당시에는 대학생인 탓에 금전적인 어려움은 물론 여자 속옷을 이용한 광고이다 보니 애로점이 많았다.

서욱씨는 "팀원 중 여자가 있어 같이 다니며 속옷을 보러 다녔는데 재질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만지기도 하고 빛에 투과시키며 보니까 주위에 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다"며 "또 대학생이다 보니 자금이 부족해 진짜 켈빈 클라인 속옷 대신 동대문 시장에서 '짝퉁'으로 고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유혹의 시작'은 여성의 알몸 이미



지를 구매 출력한 다음 그 위에 구입한 속옷을 입히고 물을 뿌려 사진을 촬영했다. 또 옥외 광고물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서울 시내 주요 대형 건물들을 찾아다니며 찍다가 쫓겨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정호균씨는 "큰 대회에서 상을 받아 좋기도 하지만 상이 많다고 해서



세계 3대 광고제의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3위에 해당하는 '브론즈 월드 메달'을 수상한 조선대학교 출신 정호균(사진 오른쪽)씨와 서욱씨가 지난 25일 중국 상하이에서 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취업이 잘 되는 건 아니다. 취업을 위해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만드는 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상을 받지 못해 자책감에 빠진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지 조심해야 한다"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현재 광고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정호균씨와 서욱씨는 "광고도 생명이 있다. 상업적 광고를 만드는 것보다 소비자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광고를 만드는 '광고쟁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바르게 살기 광주서구협 '이웃사랑 답죽행사'



바르게 살기운동 광주서구협의회(회장 김기동·이하 바르게 살기운동)는 28일 광주 서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여름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대접했다.

바르게 살기운동은 지난 17일과 23일, 24일에도 서구 상촌시영종합복지관과 상촌종합사회복지관, 금호시영복

지관에서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여름 보양식인 삼계탕을 대접하며 노인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서구청과 바르게 살기운동 주관으로 열린 '이웃사랑나눔 답죽행사'는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기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영기자 mjna@kwangju.co.kr

조선대병원·유안초, 아토피 추방 손잡아

조선대병원이 광주 남구청과 협약을 맺고 유안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zero화 사업'을 펼친다.

'아토피 천식 zero화 사업'은 남구청의 국책사업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 병원은 전담병원으로서 유안초등학교

학생들의 알레르기 질환을 관리한다. 조선대병원은 전교생의 알레르기 질환 설문조사와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아토피 천식 강화를 개화하는 등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채희정기자 chae@

광주시 박래호 사무관 감사원장 표창

광주시 감사관실 박래호 회계감사 담당(57·사무관)이 감사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광주시는 "박 사무관이 광주시에 대한 철저한 감사활동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투명한 시정 구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2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이번 수상자 15명 가운데 16개 시·도 공무원으로서 유일하게 포함됐다.

그는 지난 2008년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고 관행화된 제도를 개선하고 10억6천만원의 탈루·은혜세원을



지난 6월에는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실적을 인정받아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씨는 "앞으로도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뺑소니 잠은 공익요원 2명에 용감한 시민상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던 뺑소니범을 현장에서 붙잡은 공익근무요원 2명에 용감한 시민상과 포상금이 주어졌다.

2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광주도 시철도공사 소속 공익근무요원 K(24)·S(24)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M빌딩 인근 앞길에서 순찰근무를 하던 중 동부경찰 교

주하던 D(15)군을 200m 가량 쫓아가 붙잡은 뒤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타박상을 입은 C경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며, D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감진회 동부경찰서장은 이날 자신의 집무실에서 뺑소니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K씨 등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인사

◆국제성
◇전보 (부이사관) ▲중부지방국세청 남세자보호담당관 강종원 <과장급> ▲광주지방국세청 남세지연국장 이종연 ▲세원관리국장 정이중 ▲조사2국장 공기수 ▲국제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 허병재
◇초임 세무서장 ▲목포세무서장 위덕환 ▲인산세무서장 이종대

美 안무가 머스 커닝엄 별세

현대무용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미국 출신의 안무가 머스 커닝엄(Merce Cunningham)이 별세했다. 커닝엄은 전통적 무용의 규범을 깨뜨리고 무용예술과 일상생활의 구분을 타파해 무용계에 포스트모더니즘을 도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비디오테이프 백만줄과 40여 년의 우정을 바탕으로 많은 공동작품을 발표한 안무가이기도 하다.

향년 90세. 마사 그레이엄 무용단의 무용수로 활동하다가 자신의 커닝엄 무용단을 결성한 커닝엄은 전통적 무용의 규범을 깨뜨리고 무용예술과 일상생활의 구분을 타파해 무용계에 포스트모더니즘을 도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비디오테이프 백만줄과 40여 년의 우정을 바탕으로 많은 공동작품을 발표한 안무가이기도 하다. /연필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살아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송원고 총동문회(회장 김영문) 월례회=8월31일(월) 오후 7시 풍암동 녹차막인오리. 062-682-5567.

향우회

▲재광산청향우회(회장 공병철) 월례회=29일(수) 오후 6시30분 대인동 심상전어회관. 010-3624-0030.
▲재광해남북평향우회(회장 오길수) 임시총회=31일(금) 오후 7시 운암동 숯불갈비 돈가. 062-514-2282.

종친회

▲동래정씨 대종중 이사회(광주 전남회장 정현영)=8월4일(화) 오

전 11시 왕십리 대종회관. 017-607-749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육식, 심리치료, 자립 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 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

오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 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모집

▲전문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1-9440-2512.
▲선원·양어장·양식장 일하실 분 모집=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광주은행 365코너 옆, 월급제(일당 10~

15만원), 초보자·경험자 우대. 062-681-7770.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제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다담돌 장애인야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치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스키동호회 선철클럽 회원 모집=광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광주FC 축구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서강고 운동장. 017-656-3431.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팽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 수시 모집=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늘 기쁜 지역 이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초등학생, 방과 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부음

▲윤수옥씨 별세 총식·인식·경육씨 부친상=발인 30일(목)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402호. 062-670-4444.

▲안시운씨 별세 양환·상환·선배·영숙씨 부친상=발인 30일(목)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202호. 062-670-4444.

▲장미경(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씨 별세 현대현씨 상배상=발인 30일(목) 서울 현대 아산병원 장례식장 26호. 02-3010-2646.

▲정현단씨 별세 김재우·옥자·명자씨 모친상=발인 30일(목) 화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김순옥씨 별세 이상봉·상기·상씨 부친상=발인 29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백백순씨 별세 박 일(일등학원 원장)씨 모친상=발인 29일(수) 유동 상요한병원 장례식장. 062-510-3173.

▲정태현씨 별세 찬선·찬옥·찬국·찬홍·찬수·찬순·옥순·박순·찬숙씨 부친상=발인 29일(수) 화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양덕남씨 별세 송승식·승환·승현·차현·숙현·미현씨 모친상=발인 29일(수) 화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이준수씨 별세 양상·정렬·기열씨 부친상=발인 29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이종옥씨 별세 선종근·종대·종채씨 부친상=발인 29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유승주(한전 함평지점장)씨 별세 창현·석씨 부친상=발인 29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

515-4488.

▲홍득균씨 별세 보연·우연·덕연씨 부친상=발인 29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백백순씨 별세 박 일(일등학원 원장)씨 모친상=발인 29일(수) 유동 상요한병원 장례식장. 062-510-3173.

▲정태현씨 별세 찬선·찬옥·찬국·찬홍·찬수·찬순·옥순·박순·찬숙씨 부친상=발인 29일(수) 화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양덕남씨 별세 송승식·승환·승현·차현·숙현·미현씨 모친상=발인 29일(수) 화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이준수씨 별세 양상·정렬·기열씨 부친상=발인 29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이종옥씨 별세 선종근·종대·종채씨 부친상=발인 29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유승주(한전 함평지점장)씨 별세 창현·석씨 부친상=발인 29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

